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8)(2/11/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2 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택들을 기억함, 4-5 절

고전 1:27-28 -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살전 2:10 -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행 5:41 -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 오, 주 하나님, 나는 겉보기에,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칭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받지 않은 것조차도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잘하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 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자녀와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야 합니다(고전 1:27-28).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들로 삼으신 모든 사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 받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기는커녕(살전 2:10), 이 세상에서 그들의 행실은 지극히 겸손하고 순전하였고, 악의나 속임은 전혀 없었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하였고(행 5:41), 세상이 혐오하던 그것을 큰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5.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택들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자기를 향하신 주의 뜻, 그리고 주의 영원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셔서 걱정하신 선하신 일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그 뜻과 걱정하심에 만족하여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가장 작은 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만족하고 흠족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임과 영광을 받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보잘것없는 자로 취급받아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든 늘 만족해하고 기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뜻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이어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졌거나 주어질 모든 은택들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은 부족하고 낮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은 작은 것, 미천한 것, 모자라는 어떤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낙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잘 안되고, 막힘과 실패를 경험할 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 높아졌다가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도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은 높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특히 낮고 비천하고 없는 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돌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낮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부터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나시지 않고 너무나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의 하나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당시 어떤 기득권도 없는 빈곤한 삶을 살고,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을 찾아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훌륭한 인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쓰셨지만, 동시에 세속의 기준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제자로 삼으시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평범함 어부였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비천한 목동출신이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은 훌륭한 선지자 아모스 역시 드고아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 이들 모두 인간적으로는 무엇 하나 크게 내세울 것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얻고, 높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절망감, 상실감,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음을 말해 준다.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1) 결국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감사하게 하며,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한다. (2) 아울러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 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은 뒤에는 겸손해졌고, 인간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은혜로 높아짐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3)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한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목적을 깊이 헤아렸다. 그것은 요 21 장에 나타난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부탁을 통해 알 수 있다. 모세가 받은 은혜, 이사야가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속에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도 주님의 뜻을 담아 주셨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재능, 물질, 삶의 환경 등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비전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 2:13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4)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고난은 삶의 일부분일뿐만 아니라, 특히 주님을 위한 고난은 성도들이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 1:29 -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사람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에도 은혜가 담겨 있고, 고난을 통하여 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시 119:71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의 통로이다. 아울러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한다. 시 71 편 저자는 1-2 절에서,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20 절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확신했다. 결국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교만하고 완악해 짐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신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은혜 속에 담긴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중남미 선교사님들(멕시코 이철남, 페루아마존 홍성진, 페루 황윤일)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3. 다양한 삶의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